

#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의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황인구  
인쇄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967-8133 FAX:965-0643

2002년 8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52호

## GAP제정 움직임 구체화

### 규정준수 우수약용작물에 인센티브 부여 방침

최근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약·생약 규격 국제화 포럼(FHH)이 결성됨에 따라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중국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자체 GAP를 도입해 한약시장 국제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시장 개방에 대비해 한약재 품질경쟁력 제고를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는 농림부에서 국산한약재 경쟁력 제고 방안과 우수 약용작물 재배관리 규정(GAP)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협의회 결과 우수약용작물 재배관리 규정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토양, 수질, 대기

등 약용작물 재배환경, 비료, 농약살포기준 등 재배관리 △수확, 건조, 저장 등 품질관리 등이며 야생채취·동물성 약재 등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수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인증기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농경지 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의 농업용수기준,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을 참고하고, 관행재배 및 규정준수 가능성과 농산물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GAP제정 추진일정은 농진청이 오는 10월까지 시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단체 협의 및 관계부처 협의 및 생산농민 단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연내에 GAP안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연구자료 수집·분석 및 시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생약협회는 이날 협의회에서 우수약용작물 재배관리규정(GAP) 제정에 따른 생산 및 유통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을 지적 건의했다.

우수약용작물 재배관리 규정 제정으로 품질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이점은 있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수 약용작물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생산비 지원 등 생산활동과 관련 다양한 특혜 부여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재배관리 규정 제정과정에서 각종 산업폐수나 생활하수 또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오염으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농촌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통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GAP 규정에 의해 생산된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우수약용작물'마크 부착 등 일반작물과의 차별화된 유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 또는 생산자단체를 통한 일괄수매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AP 규정에 따른 경우 관행 재배시 보다 생산원가 초과로 일반 재배법에 의해 생산된 수확물보다 고가의 시세 형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GAP준수 약용작물은 친환경인증 또는 공공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한의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직접 유통 등 유통상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정희)

## 국산약재 경쟁력제고 비상 일괄수매 유통시스템 구축 필요

식품용 수입약재의 반입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약용작물의 생산량은 지난 '96년 42,769톤, 이후 지난해 30,797톤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식품용 수입약재의 반입량(수급조절품목)은 지난 '99년 3,320여톤에서 2000년에는 약 1만여톤, 지난해에는 무려 2만5천6백여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경기 불황을 맞고 있는 한약시장은 김빠진 맥주만큼이나 무미건조하다. 매기가 부진한 관계로 그동안 지속적인 상보합세 경향을 보이던 국산약재 가격도 제시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추세에 있는 수입량에 비해 수출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식품용 수입약재의 반입과 변칙유통 행태는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수급조절품목마저도 단계적 개방방향이어서 국내 생약생산 농가들의 재배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다.

값싼 수입약재의 홍수 속에서 이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국내 생약농업의 탈출구는 없을까. 이에 한국생약협회는 국산한약재 유통상의 문제점과 함께 국내 생약농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산한약재의 생산원가 절감과 고품질화를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약재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 무엇보다 국산한약재가 수입약재와 섞이지 않고 제값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협회는 또 "약초재배단체나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관리상태를 심사하여 적격품에 한해 국가기관의 품질인증 마크 표시를 발급함으로써 국산한약재의 품질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품질 국산한약재에 대한 소비자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약협회 도지회나 생약조합 같은 생산자단체에 농림부에서 지원, 각도 1곳 씩 국산한약재 검사와 선별 포장공정 지원은 물론 국산한약재 일괄 수매 생산 유통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산한약재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수매와 선별 가공 작업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별도의 생약가공 공장 설립의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농림부는 오는 13일 관련기관·단체간 협의회를 통해 국산한약재의 경쟁력 제고 대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지면안내

- 중약재 생산 품질관리규범 내용 ..... 3면
- 중국약재 시세동향 ..... 4면
- 재배기술정보 ..... 5면
- 여름에 마시는 한방차(제호탕) ..... 6면

## 제100차 중앙이사회 소집 공고

협회정관 제10조, 11조 2항에 의거 2002년도 총100차 중앙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일시 : 2002년 8월 8일(목) 오후2시
- 장소 : 우이동 유원지 옥류정  
(서울 성북구 우이동 소재)
- 안건 :
  - 포장재 및 간판, 서식류 디자인 심의
  -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사업 추진 세부방안 논의
  - 협회 직제규정 심의 등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